

2016 봄

햇볕

2·28

제16권 1호 통권61호

시론 4·19혁명 56주년을 맞아
특집 제56주년 기념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영 미디어렐 코바코-
방송, 통신, 광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 큰 내일을 이끌어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햇불

2·28

題字 : 蕙汀 柳永喜

2016년 봄 제16권 1호 통권61호



- 04 시론
4·19혁명 56주년을 맞아 / 안동일
- 06 2·28특집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 07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 대통령 축하 메시지

- 08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사 / 노동일
- 10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 스케치
- 14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개요

- 문예광장
- 35 수필·고문, 그 찬란함 / 고운자
- 38 수필·재수 없으면 백 살까지 산다 / 김원중
- 40 시·까치집 / 서하

- 특별기고
- 17 2·28민주운동과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 황정길

- 2·28행사
- 41 2016년 2·28기념사업회 정기총회
- 42 제3회 2·28민주운동 기념사진전
- 43 2016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43 “창의적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
- 44 제16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및 시상식 계획

- 자유기고
- 22 캠프 헨리와 대구 / 이정태
- 31 장가계를 말하다 / 이종원



◀ 표지: 제5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겸한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입회안내

-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대구은행 505-10-139462-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발행 인 | 노동일 | 편집 인 | 김약수 | 인 쇄 | 2016년 4월 12일 | 발행 | 2016년 4월 12일
 편집위원 | 박명철, 장영향, 양성호, 이방현, 김동환, 장상두, 곽중훈, 서정일, 박 철, 최우식, 강태길, 정일수
 발행 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우 41968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228demo@hanmail.net Homepage: http://www.228.or.kr
 인 쇄 처 | 신문사(053)474-9000

※ 본 책자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함.

4·19혁명 56주년을 맞아 -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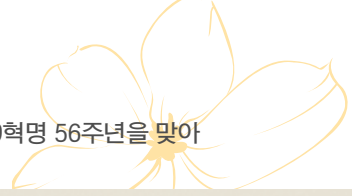
안 동 일

홍익법무법인 대표변호사

4·19혁명 56주년을 맞이합니다. 4·19혁명은 5·16 이후의 6·3운동, 유신반대운동, 부·마 항쟁, 그리고 12·12 이후의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이자 시발점임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4·19혁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필자는 1960년 5월 초에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해 2월 28일 대구 학생시위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59일간의 4·19혁명의 뜨거운 현장기록인 ‘기적과 환상’ (1960년 6월, 영신문화사 발행, 필자와 홍기범의 공저)의 취재차 대구를 첫 방문지로 정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으로 4·19혁명대열에 참여했던 필자가 4·19혁명의 첫걸음을 내딛은 2·28 대구 학생시위의 주역들과의 만남은 지금 회고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경북고 이대우, 경북사대부고 최용호, 대구고 손진홍, 경북여고 신구자·이영옥 등 각 고교 대표들은 곳곳의 의기와 젊은 열기가 뿜어 넘치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민족정기의 횃불이었습니다. 특히 고 이대우 군과 최용호 군과는 필자가 초대회장인 사단법인 4월회의 회원으로 오랫동안 교분을 맺고 있어 지금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구 학생들의 2·28시위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부정선거 및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고교생들이 일으킨 의거로써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을 완수하게 한 우리나라 민주운동 및 학생운동의 효시였습니다.

1961년 4월 10일 2·28민주의거기념탑이 건립되고 1990년 2월 2일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2·28의거를 기려오다가 2005년 12월 30일에 대구광역시가 ‘2·28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을 ‘2·28대구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통칭 ‘2·28민주운동’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또한 2013년 2월 28일에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90년 설립된 이래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온 단체인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5년에 제16회 ‘4·19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노동일 공동의장은 작년 4월 14일 4·19문화상 수상소감에서 “2·28, 3·15, 4·19, 5·18의 민주운동정신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대립과 상극의 비민주적 의식과 문화를 걷어내는 상생과 공영의 민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횃불이 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헌법전문이 가리키는바와 같이 3·1정신과 4·19정신입니다. 3·1정신은 자주독립의 정신이요, 4·19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4·19정신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2·28민주운동입니다.

그런데 3·15는 ‘3·15의거기념일’로, 4·19는 ‘4·19혁명기념일’로, 5·18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그 밖에도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기념일’로,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의 시발점인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2·28민주운동만 아직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28민주운동이 4·19혁명의 도화선이요, 시발점임이 분명하다면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오늘 우리들은 2·28민주운동주역들의 민주발전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민주발전 염원을 담아,
500만 대구·경북시도민들의 민주발전 염원을 담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민주발전 염원을 담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결의를 만천하에 널리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8일(일) 11시부터 대구 두류공원에 소재한 2·28민주운동기념탑 광장에서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이 2·28주역, 각급 기관단체장, 2·28회원, 시민,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노동일 공동의장(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겸임)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의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를 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서명식에서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동참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 날 서명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여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축사를 대독하면서 “2·28을 대구의 정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구시민과 함께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2·28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아울러 밝혔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광주시민도 뜻을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2·28기념식이 영호남의 화합은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2·28기념사업회는 이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과 더불어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정부 청원과 국회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대통령

2·28 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

제56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이정표를 세웠던 2·28 민주운동이
해를 거듭하며 역사적 위상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동서회합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념행사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의거이며, 그 날의 용기와
기백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맞아,
그 날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나라를 혁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나가겠습니다.

56년 전 대구에서 타오른 애국의 불씨가 나라의 여명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듯이,

오늘 이 기념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28일

대통령 박근혜

“제5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기념사



노 동 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여러분, 오늘 2·28민주운동 주역들을 모신 제56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자리에서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을 아울러 갖게 되어 참으로 가슴 벅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앞으로 2·28국가기념일추진사업을 선두에서 지도, 성원해주시고 수고해주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이동희 시의회의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님, 오진영 보훈청장님, 그리고 특히 대구와 2·28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멀리에서 오신 윤장현 광주시장님,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님, 3·15, 3·17, 4·19, 5·1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표님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국가기념일 추진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전·현직 국회의원님, 장·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후보자들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선거법 관계상 주요 정당 대표들의 축전과 화환을 포함해서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성과 지혜를 다하면 우리의 염원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2·28국가기념일 추진 선언문을 낭독해 올리는 것으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의 기념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염원을 담아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내외에 선포한다.

1960년 늦겨울 이 땅에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리는 한줄기 함성이 있었다. 2·28민주운동이라 불리게 된 이 날의 의거는 4월 시민혁명이라는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큰 울림이었다.

2·28의 최초 시작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대구의 고등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참여와 지지를 보내면서 시민저항 운동으로 타올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깨운 2·28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작으로 우리 역사에서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할 역사적 쾌거인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올렸다는 대구·경북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한 우리 역사의 자랑이기도하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모범이 되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나아가 이 시대는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렸던 2·28이 상생과 공영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계기로 2·28정신이 국가적 민주발전의 동력이 되고 미래세대에 빛나게 계승되어야 한다.

새벽을 알리는 여명의 종소리는 단지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후세에 명확히 전할 때 비로소 역사는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살아 숨 쉬며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500만 대구·경북민을 비롯한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특히, 2·28민주운동에 헌신해온 시민들은 2·28민주운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시대적 열망을 모아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28일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



노동일 공동의장 기념식



박명철 상임고문 경과보고



학생 결의문 낭독(대구고 유성용)



곽홍란 교수의 김윤식 시인 헌시 낭송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선포식



합창단 축하 공연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100만인 서명운동



영호남의 만남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 스케치





2·28민주운동 제56주년 기념식 스케치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개요

I. 국가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2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념일은 3·15의거기념일, 4·19혁명기념일 등 모두 46개입니다. 국가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으로는 법령이 아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II. 추진 배경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진 역사적 운동입니다. 3·15는 ‘3·15의거기념일’로, 4·19는 ‘4·19혁명기념일’로, 5·18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기념일’로,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의 시발점인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기념

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만사지탄이 있지만,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하는 것이 역사의 합당한 평가입니다.

Ⅲ.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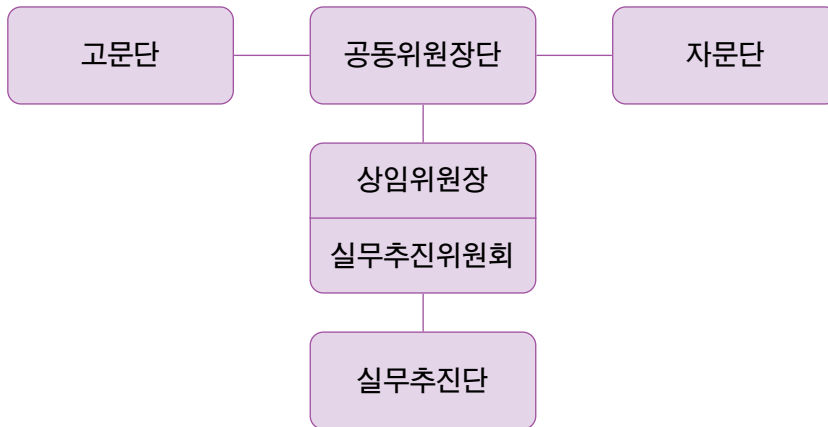
추진과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통한 국가기념일 추진 염원 결집 - 범시민추진위원회 청원서 작성 - 정부 해당부처 청원서 제출 - 해당부처 심의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선언]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통한 국가기념일 추진 염원 결집 - 범시민추진위원회 요청서 작성 - 대구지역 국회의원 전달 -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 해당상위 - 국회본회의 의결 - 정부이송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선언] 경로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Ⅳ. 범시민추진위원회 기구



◆ 공동위원장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의장(상임)
- 상공회의소 회장
- 계명대학교 총장


◆ 고문단 구성 내역(예정)

- 대구광역시 시장(상임), 경상북도 지사(상임)
- 지역국회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등 주요 관계 인사
- 주요 대학 총장
- 주요 언론사 대표
- 주요 경제계 대표
- 주요 종교계 대표
- 주요 사회단체 대표
- 2·28기념사업회 전임 의장
- 주요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표

◆ 자문단 구성 내역(예정)

- 구청장
- 시의원
- 구의회 의장
- 대학총장
- 고등학교 교장
- 경제계 대표
- 언론사 대표
- 사회문화단체대표
- 2·28기념사업회 이사

V. 기대 효과

2·28의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발전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한 축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횃불을 처음 들었던 2·2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상생과 공영’의 선진 민주주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서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2·28의 발생지가 자신의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 시민들의 사기를 높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2·28민주운동과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황 정 길
전 금융인, 경북고 42회

56년 전인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학생들이 일으킨 민주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청사에 길이 남을 만하나 반 세기가 훌쩍 넘고 보니 우리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직접 참여한 나로서는 실로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배들을 위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2·28민주학생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되짚어 봄으로써 오늘과 같은 난세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복이후 이승만 정권 12년간(1948~1960)에 일어났던 반민주적 주요사건들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음미해 보는 것도 2·28민주운동의 필연성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945년 8·15광복 후 3년간의 미군정 하에서 UN감시아래 1948년5월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임기 2년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 대통령간접선거(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및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했으며 상해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을 지내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이승만이 거국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하여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2대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으며 선거결과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이 정원 210명의 60%인 126명이나 당선되었다.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방식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승만 추종자들이 자유당을 창당(1951년 12월)하고 직선제 개헌인 이른바 발취개헌안(여당인 자유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및 양원제개헌안과 야당이 주장한 국무위원회에 대한 국회불신임의결권을 가미한 내각책임제를 발취, 절충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전시의 피난수도였던 부산에서 경찰과 군대, 폭력단 등을 동원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1952년 7월 4일 토론 없는 기립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해 7월 7일 제1차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이 발취개헌에 따라 1952년 8월에 실

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승만 독재의 서막이 열렸다.

발취개헌에 의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재선된 2대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적인 중임을 도모하기 위해 이기붕 등을 헌법기초위원으로 하여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삭제, 국무총리제폐지,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위승계권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비밀투표로 표결(1954. 11. 27)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유당간부는 재적의원의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데 영점이 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정족수는 자동적으로 135가 되기 때문에 헌법개정안도 이미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은 11월 28일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되었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되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125명 중 123명(김두한, 민관식 제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국회는 곧바로 이 2차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여 당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이 곧 우리헌정사의 최대오점으로 불리는 ‘사사오입개헌’이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는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중임제한이 철폐된 자유당의 이승만과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의 신익희,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무소속의 조봉암이 출마하였으나 선거 운동기간 도중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호남 행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승만과 조봉암의 양자대결에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어 제3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조봉암의 선전으로 이승만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2차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3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 체제를 재연장하고 대통령의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규모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서 1960년 3월 15일 실시되는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과 국회의장을 지낸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야당인 민주당은 내무장관을 지낸 구과의 조병옥과 현직부통령인 신과의 장면을 내세워 용호상박의 명승부가 예고되었으나 조병옥이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직을 승계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치르려고 공무원과 경찰, 깡패들을 총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독재정권의 조종(弔鐘)이 울리

고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1960년 2월 27일 경북고 2학년 3반 우리들은 종례시간 전에 실장이 학생간부회의에서 돌아와 내일(28일) 등교할 때 데모할 준비를(각목, 우산 등) 해오기로 결정하고 행동요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경북도청(현 경상감영공원)까지 데모행진을 하기로 했다.

2월 28일 정오경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일요등교를 당한 1, 2학년(3학년은 대입수험으로 휴업 중이었음) 1000여 명이 운동장에 운집하고 교단에 올라간 학생부위원장 이대우(안효영, 박경구 동참)가 하청일이 쓴 결의문을 낭독한 후 우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대오를 지어 교문을 향해 뛰쳐나갔으며 때 마침 교무회의를 마치고 출석부를 옆에 낀 채 조례를 하기 위해 나오시던 선생님들과 마주치면서 선생님들은 교문에서 우리들을 저지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교문을 돌파한 후에는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도청을 향하여 데모를 계속해나갔다.

도청에 도착하여 “도지사 나오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뒤늦게 알아차린 경찰이 도착하여 도청문을 잠그고 우리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도청마당은 쫓고 쫓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잠겼던 도청문은 학생들의 힘에 밀려 열리고 말았다.

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부학생들은 경찰곤봉세례를 받아 부상당한 학생들도 있



었지만 나는 학생무리들 가운데 있었으므로 잡히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으며 탈출한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포함한 일부학생들은 대구시장 관사로 가서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쫓기어 흩어지고 나는 혼자서 걸어 동인동 집으로 갔다.

집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도청까지 함께 있었던 윤호정이 찾아와 반갑게 악수를 하고 함께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의 유세장인 수성천변으로 갔으며 거기서 정무형이를 만나 우리 셋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데모경험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복경찰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혹시 사복경찰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걱정스럽게 반문도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 보기도 했다.

유세가 끝나고 우리 셋은 군중들과 함께 수성천 돌다리를 건너는 순간 앞에서 ‘침병’ 하는 물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윤호정과 정무형이 경찰에 멱살이 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나는 붙잡히지 않고 군중 속에 숨어 10여 미터 뒤에서 붙잡혀가는 두 친구를 뒤따라가면서 수성교 입구에 세워둔 경찰백차에 두 친구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백차 앞 큰길을 건너는 순간 뒤에서 경찰이 ‘이놈도 맞다’ 하면서 나를 붙잡았고 나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두 팔꿈치로 뿌리쳤지만 교복단추만 후다닥 떨어져 나갔을 뿐 꼼짝없이 붙잡혀 백차에 태워졌다.(경

찰에 붙잡히는 순간 가장 두려웠던 것은 퇴학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었고 부모님과 누님을 대할 면목이 없어 걱정이 앞섰다.)

우리 셋을 태운 백차는 대구역골다리를 지나 북대구경찰서로 들어갔으며 경찰서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셋이 한방에 있었으나 곧이어 셋은 각각 다른 방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내 경우는 방안 입구에 한참동안 세워놓고 경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자식, 조그만 학생 놈이 공부는 안하고 데모를 해……?’ 하면서 가슴을 쥐어박으며 겁을 주는 것이었다.

퇴학당하면 어쩌나 하며 겁에 질려있는데 드디어 취조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신상조사를 하더니 본격적으로 취조가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데모의 배후가 누구냐고 으박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배후가 없다고 하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본격적인 협박과 고문이 시작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하는 큰소리에 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니 내 머리를 양다리사이에 밀어 넣어 조이고 내 두 팔을 뒤에서 힘껏 잡아당기며 자백을 강요했다.

나는 큰소리로 ‘아야, 아야’ 하면서 숨넘어가는 척 내숨을 떨기도 했으나 없는 배후를 자꾸만 대라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면 할수록 다리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기 수 십 차례를 반복했으

며 옆방에서도 똑같은 고문을 당하는지 윤호정의와 정무형이의 비명소리도 간간이 들려와 몸서리가 쳐지면서도 이게 말로만 듣던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고문하던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하고 체념하고 말았다.

이처럼 고문은 계속되고 밤은 깊어 집에도 못가고 유치장에 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자정쯤에 대구역 직원인 윤호정의 자형이 경찰서로 불려나와 다시는 데모를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우리 셋을 경찰차에 태워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후일 들은 얘기지만 윤호정의 자형이 공무원 신분으로 같이 살고 있는 처남의 2·28반정부데모참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사상이 불온하다며 연좌제차원에서 영천역으로 좌천되어 무척 가슴아파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큰 부상자나 사망자 없이 2·28의거는 종료되었지만 이승만 독재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시험, 토끼사냥, 영화관람 등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야당 부통

령후보의 선거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일요일교 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경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교생들은 선생님들의 저지로 교문을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학교 안에서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60년대 초 우리의 시대 상황이었다.

지금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의 우리나라는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였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은 정적이며 대통령후보였던 조봉암을 간첩누명을 씌어 사형시키고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으며 평화적인 학생시위를 총칼로 진압하여 3·15마산의거에서 12명, 4·19혁명에서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인공노할 독재정권이었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에 맞서 어른도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2·28민주운동을 주도하여 2개월 후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의 후배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卍



캠프 헨리와 대구



이 정 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캠프헨리 지정학

캠프 헨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압축 아이콘이자 대구역사의 상징이다. 풍수적으로 캠프헨리는 비슬산-앞산-영대병원-수도산(삼봉산)-아미산으로 이어지는 대구 주맥인 이천동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1778년 당시 대구천의 범람으로 홍수가 잦아 주민들의 고충이 심했다. 이를 본 대구 판관 이서가 사재를 털어 대구천의 수로변경공사를 하여 신천(新川)을 내었는데 그 덕분에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지금의 대봉, 봉덕, 봉산, 이천동 일대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일제가 한반도에 진주한 후 일본군 80연대가 그 터에 자리를 잡았다. 일본군이 패퇴한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일본군주둔지에 부지를 조성해서 캠프헨리, 캠프조지를 두고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을 위한 병참행정사령부를 설치했다. 현재 대구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는 캠프 헨리를 비롯하여 미군의 숙소인 캠프조지, 편의시설이 있는 캠프워크, 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K2 등이 있고, 이들 부대는 왜관의 캠프캐롤과 연계하여 주한 미8군의 후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안보적으로 캠프 헨리는 ‘한국 내의 작은 미국’으로 한미동맹을 작동시키는 엔진역할을 했다.

2. 캠프헨리의 역할과 대구: 功七過三에서 過七功三으로

캠프헨리는 일제와 6·25전쟁 그리고 분단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미군군사기지에서 대구 속의 미국총락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한미동맹군을 위한 보급장이 아니라 최강 선진국 미국과 수 백 년 뒤진 한국을 연결시키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이 특수통로를 통해 우수한 군수와 물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이념이 유입되었다. 덕분에 대구는 산업사회의 중심이 될 기회를 얻었다. 군수품의 생산기지로서 섬유를 비롯한 각종 산업이 활성화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로의 거점이 된 것도 미군의 보급로와 무관하지 않다. 미군부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컸다. 미군과 군속들의 소비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상품들이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군부대를 통해 확산된 각종 소비문화와 예술 등이 대구를 문화, 교육도시로 정착시키는데 일조했다. 덕분에 대구는 산업과 교육, 문화라는 핵심가치들을 가진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부작용도 많았다. 주한미군기지가 가져오는 소음과 위험성은 물론이고 상업자본주의가 가진 제반문제들이 발생했다. 미군부대 주변의 유흥업소, 퇴폐문화가 속칭 양공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켰고, 미군에 의한 범죄와 사회적 가치혼란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발전의 장애와 더불어 미군주둔지의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군부대 관련 민원이 증폭하고 부대이전 요구가 높아졌다. 군부대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회발전 초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정적 요인이 많아지는데 대구는 그 변곡점을 지난 듯하다. K2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소음문제가 주요하지만 실제 공간문제가 더 큰 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동대구역 인근에 건설되는 아시아 최대의 쇼핑센터, 관광지로 부상한 팔공산, 이시아폴리스와 주변의 쇼핑센터들은 대구가 시장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때문에 위치상 K2는 시장확대와 연결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구를 전쟁패러다임으로 고정시키는 상징이 된다. 남구의 캠프헨리와 캠프조지 그리고 캠프워크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 전도를 펼쳐놓고 부대의 위치를 마킹해보면 대구시 중심에 만리장성 보다 더 높은 옹벽이 쌓여있는 꼴이다. 도청에서 시작하여 앞산에 이르는 직선도로의 맥이 반월당을 지나고 명덕네거리를 지나 영대네거리에 이르면 캠프워커에 의해 차단된다. 삼덕동에서 대봉동, 봉덕동, 이천동을 지나 앞산으로 확대되어야 할 도시발전이 건물바위 네거리를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캠프헨리 때문이다. 도시도 생물처럼 성장하고 또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캠프헨리의 존재는 이제 부담스럽게 되었다. 결국 캠프헨리가 필수불가결한 안보기지라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도시가 재생되고 있고 첨단 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데 여전히 철조망이 둘러쳐진 낡은 벽돌담이 도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이것이 대구시민들의 생각이다. 대구시 남구에 소재하는 미군기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지명	기지의 역할	면적	소재지
캠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전용주거지역: 캠프헨리에 근무하는 미군, 군속들의 위락시설, H-805헬기장, A3비행장 스포츠와 레저시설, 의무대, 골프장(9홀) 미8군과 연합사에 중요한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고 미군의 이동을 허가하고 보호하는 헌병대 역할 1950년 6월 8일 주둔시작 *일제시대 1907년부터 일본군의 군용경비행장 및 사격장, 훈련장으로 사용 	22만 6천 여평	대구 남구 대명5동, 9동, 봉덕3동
캠프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군속을 위한 교육시설 및 미군숙소(아파트) 	1만 9천평	대구 남구 봉덕1동
캠프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미군의 병참행정사령부 대구중학교 부지에 주둔(6·25전쟁 당시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고 한 부지를 지금도 사용함) 	6만 2천평	대구 남구 이천동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 주둔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녹지로 분류되어 있음 인근지역까지 계산하면 14~15% 가 미군부대로 인해 제한되고 있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징수 불가 	- 실점유면적은 307,800평 정도 (남구전체 면적의 6% 이상)	대구 남구 이천동

3. 캠프헨리와 한미동맹

최근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와중에 전시 작전권 반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미군감축 및 주둔비용분담, 미군부대이전과 철수라는 문제가 진행되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동맹으로서 한미FTA가 발효되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관계(TPP)에 한국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면 냉전이 끝나 이데올로기 시대의 대치상황이 정리되었으면 한반도 분단 상황 역시 종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군사에서 경제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확대되어 양자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핵과 미사일 게임으로 승급되면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한가지이다. 중국의 부상이다. 부상하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시장을 넘어 세계의 금고로 자리매김하자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미국은 아시아회귀를 결정하고 아시아 중시정책(Pivot Asia, Rebalancing Asia)으로 전환했다. 중국봉쇄와 중국접근 양면책을 구사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라인을 부활시키려 진영을 재정비했다. 이로 인해 잠시 해빙되는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상황은 핵, 미사일 게임이라는 극단의 대결장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시

진평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오바마의 TPP 교차점에 위치하게 되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담벼락에 올라앉은 처지가 되었다. 동아시아에 냉전적 경쟁구도가 재편되자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일안보협력지침을 빌미로 전수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전략수정을 감행하더니만 주변유사사태법을 정비하고 신안보법제를 개편했다. 결국 아베정부는 평화헌법 9조의 족쇄를 벗을 수 있도록 조문을 해석하고 중무장에 돌입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비핵화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아바타 북한을 부추겨 도발의 고삐를 풀어주고 있다.

캠프헨리는 이 복잡한 싸움판의 중심에 있다. 한미동맹의 시작점이고 종결점인 셈이다. 캠프헨리는 19지원 사령부로 병참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기지 재배치 일환으로 예하부대를 재편하여 501지원 여단을 창설하였다. 캠프헨리의 미육군지원대 산하의 403미 육군야전지원대대-동북아시아(the 403th Army Field Support Battalion-Northeast Asia) 지원단은 왜관의 캠프캐롤, 부산의 저장창, 일본의 사가미 육군보급창 요코하마 북선창에 위치한 미육군 사저에 배치할 물자와 장비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왜관에 위치한 캠프캐롤의 미육군 사전배치재고불출훈련(Army Prepositioned Stock-4 Draw Exercise)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한국에 미리 배치된 미군의 전쟁물자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으로 키리졸브훈련이나 독수리연습 시 전시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한다. 사전배치물자는 전방에 배치된 후속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엔진, 수리부품, 의료물자, 유류물자, 장벽건설자재, 전투식량, 군복과 같은 전투지원을 위한 물자를 통칭하는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 본토 해외증원군이 사전 배치된 전쟁물자를 배급받아 약 60일 동안 초반전쟁을 수행할 분량을 준비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남구 이천동에 위치하는 미군기지 캠프헨리는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전략기지이다.

4. 캠프헨리와 환경오염

캠프헨리는 한미동맹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략기지로서 그 역할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정리되어 통일이 되면 군사패러다임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과 대구시에 외국군대가 주둔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만 보더라도 빌려 쓴 건물은 원상태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미군주둔기지도 마찬가지이다. 오키나와나 필리핀의 미군기지들에서 이미 환경오염을 둘러싼 분쟁선례가 나타났다. 한국은 예외일 것이라는 낙관은 낭만이다. 왜관기지의 고엽제 매립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오염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 이상 오염이나 훼손이 진행되지는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시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땅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주민단체들이 환경단체나 기타 국제 NGO들과 연대하여 기지 이전과 신설을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의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전쟁패러다임을 종식하자는 지역주민들과 유지시키려는 중앙정치권 사이의 충돌현상이기도 하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미국의 군사패러다임 존속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전투기 폭음, 실탄연습에 의한 산불, 항공기 추락 및 주민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지하수 오염(쓰레기 매립문제, 폐수 등), 정보차단으로 인한 관리 및 대책마련 불가의 문제, 토양오염, 공기오염과 소음 유발,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무기생산과 실험, 군사훈련, 군사시설 설치와 유지활동, 군장비의 저장과 수송, 사고, 그리고 노후 장비나 무기의 폐기 등에서 끊임 없이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 남부 후텐마 기지를 북쪽 헤노코로 이전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96년 일본정부와 미군이 2014년까지 이전 합의를 한 것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은 이렇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주일 미군기지의 74% 가량이 몰려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데 헤노코 연안까지 매립하여 기지를 건설하면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다. 보다 실제적인 운인도 있다. 이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경제자립 지원, 정부의 지역개발 원조, 행정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데 유리했지만 현재는 군부대의 주둔이나 환경오염이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오키나와는 중국관광객 폭증으로 새로운 생산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철수를 원하며 일본정부의 일방적으로 설치한 군사기지를 철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다. 1992년 9월 냉전종식과 동시에 미 공군의 최대 해외기지였던 필리핀 클라크기지가 폐쇄되고 11월에는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가 철수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미7함대의 최대 병참기지였던 수빅기지는 1988년 기지사용협정을 체결한때부터 연간 4억8천만 달러, 주둔미군 1만여 명이 소비한 달러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수익원이었다. 그러나 1991년 9월 필리핀 상원에서 재계약이 부결되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미군철수 직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수빅만 기지와 인근 클라크 공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실었다.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 방기 사실과 이에 대한 미 정부와 군의 책임회피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미국 의회의 예산지출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1992년 ‘군사기지 폐쇄,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채무’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기지는 미

군의 연료와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오염되었다. 오염정도는 미국의 공해배출 기준은 물론 필리핀 국내법상의 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허용기준치 $10\mu\text{g}/\text{cm}^3$ 를 크게 웃도는 $13.2\sim 62.1\mu\text{g}/\text{cm}^3$ 로 검출되었고, 무기의 화력시험에서 유출된 연료와 화학물질, 불발탄 등이 땅과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스며들었고 일반쓰레기와 기지산업시설의 폐수로 수빅만이 크게 더럽혀졌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빅만 기지의 선박수리시설과 발전시설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과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미군 당국은 이들 기지에 대한 정화 계획이 없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기지 이양에 관한 필리핀과의 협정에 정화조치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프헨리도 당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적의 소멸로 인한 안보 수요 감소와 미국 내의 재정, 무역적자에 따라 외국주둔군의 규모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미군사기지의 반환과 원상회복비용이다. 군사기지들에서 방치, 매립된 폐기물은 연료와 페인트, 용제, 중금속, 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PCBs), 시안화물, 폐놀, 산, 알칼리, 발사용 화약, 그리고 폭발물 등의 극독물들이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암, 기형아 출산, 염색체 손상 등이 유발되거나 간과 신장, 혈액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냉전종식 시기(1991년 8월)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미군주둔국으로 부터 받은 환경오염피해보상 청구는 1,259건에 2,580만 달러에 이르며 이후에는 300여 오염지역에서 1억 달러이상의 복구요구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5. 캠프헨리와 한미행정협정(SOFA)

캠프헨리의 환경오염문제가 아직은 미래의 문제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주한미군 주둔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주둔과 동시에 시작된 문제이다.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가 발생한 이후 한국에서도 환경오염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1993. 05) 동년 8월 주한미군기지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담당할 환경분과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한미 양측의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환경처 정책조정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모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외무, 국방, 내무부 관계관 등 한국 측 11명과 주한미군 환경관계관 9명 등이었다. 위원회는 양국 환경관련법령과 중장기 환경개선계획 등을 비롯한 정보 및 자료 교환, 주한미군 탄약상자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PCB, 벵커C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오수와 폐수 배출문제 논의, 주한미군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 국내 환경법령에 따른 환경기준을 미군 측이 준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SOFA, 주둔군 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을 보면 동위원회의 활동에



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에 대한 내용(협정 4조 1항)을 보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공무상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범죄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특히 공무원단 자체가 주한미군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차단된다(합의의사록 22조 3항). 환경분과위원회의 운영지침도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미합동위원회의 사전협의 없이는 언론에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캠프헨리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체가 그 지역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행정협정 6조 ‘미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전기, 통신, 하수, 오물처리 등이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시설 설치비용을 방위비 부담차원에서 한국 측이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근 미군의 고엽제사건(2011), 탄저균반입(2015) 실험사실이 알려지면서 SOFA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고 있다.

6. 공존의 미학과 포용: 캠프헨리와 함께 춤을

봄꽃 몇 송이를 보고 겨울외투를 벗어던졌다면 꽃샘추위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다른 보온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외투를 벗은 채 무턱대고 봄을 맞다간 동장군의 독감공격에 곤혹을 치르기 쉽다. 캠프헨리가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이다. 핵을 준비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분위기를 경제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은 겨울이다. 봄을 기다리고 준비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톤적 이상적 기대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민은 해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정답은 미국이다.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피난 갈 수 있는 국가 중 최적의 하나가 미국이다.

여전히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환경은 미국이다. 지금 미국이 위기에 직면한 동맹국들을 방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이다. 비생산적인 분쟁이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세계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피로도가 증폭

되고 있다. 유럽의 난민, IS의 등장, 이라크, 아프칸의 혼란이 미국을 괴롭힌다.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보내기는 하지만 자유항행을 구애하는 정도의 타협안만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을 때도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삼키고 우크라이나를 뜯어 먹을 때도 지켜보고만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던 일본에게 러시아 하원의장이 해제압박을 가했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최강이다. 한계에 직면한 미국을 목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당위론적 현실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상수로 설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국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부할 능력과 의지는 있는가? 국민동원능력이 있는가? 미국을 거역할 정치인이 있는가? 권력의 맛을 본 정치인들 가운데 미국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꿈꾸는 자가 있는가? 미국 없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설계하는 군인이 있는가? 'NO'이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미국의 상수로 취급된다.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고,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할 것이고,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에는 캠프헨리가 존속될 것이다.

단지 기대할 수 있는것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익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총명해지고 민주화가 일상으로 정착되어서 더 이상 미국적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는 확대되고 있는 세계시장에 편승해야 하기 위해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방향전환을 시도하면 된다.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시장에서 완전한 게이머가 되려면 독자적인 자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장을 단단히 하고 시장으로 가야 한다. 흑자는 집집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이 있으면 결국 서로 총질을 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도둑이 총을 들고 있는데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할까? 결국 누군가가 도둑을 대신 잡아줄 수 없다면 새총이라도 들어야 한다.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안보도 상품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 사회주의 사회의 유물론의 껍질을 벗기면 양자 모두 '물질' 즉 '돈' 만 남는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유도 '돈'이다. 일본이 헌법 9조라는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진 것도 '돈' 때문이다. 돈을 적게 쓸려고 옹크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돈 벌이에 나서는 것이 유리한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족쇄를 풀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것도 생선 맛을 안 중국인들이 생선을 원하고 생선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남의 집 담을 넘는 자도 마찬가지다. 담 넘는 취미 때문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다. 한미동맹도 이제는 '사업'과 '돈'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안보우산제공국과 수혜국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사업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경험자산도 상품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노하우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군사안보상품이다.



때문에 과거의 ‘반미’와는 다른 차원의 미국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히 미군부대가 철수되어야 하지만 미군부대를 ‘월마트’와 같은 대형 미국쇼핑센터로 전환시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70년의 세월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장래 미군부대를 ‘한미자유쇼핑특구’로 만들면 된다. 관세 제로(Zero) 구역으로 지정해서 군사안보시설을 경제시설로 전환시키면 된다. 미국본토도 비자 없이 출입하는 시대에 대구 속의 작은 미국을 만드는 것은 쉽다. 그러면 미군과 미군속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불모가 된다. 어차피 전역한 미군이나 군속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우리도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군주둔지를 상업지구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부지환수가 이루어지고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반을 꾸리고 지역민과 함께 추진한다면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미군부대 철수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의 해법은 마음을 터놓는 것이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슴에 품고 갈 것과 털어내야 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성공여부는 상호이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출발은 어느 일방의 필요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불평등관계였지만 지금은 같은 출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다. 점령군이 아니라 동급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캠프헨리는 대한민국 속의 작은 미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담장을 허물고 철조망을 걷으면 60~70년대 존재했던 ‘위험한 한국’이 사라지고 고도로 발전되고 살기 좋은 2016년의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장가계를 말하다



이 종 원
(사)대구문화재지킴이회 회장

중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어 관광할 곳도 처처에 널려있다. 수년 전 황산을 보고 명산 중의 명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장가계를 보고나니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천문산, 천자산 등의 산과 무릉원 안의 황석채, 원가계, 보봉호와 황룡동굴 등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통칭 장가계라 부르며, 장가계시는 인구가 170만명 정도 되는 중국 중남부 호남성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장가계를 다녀왔다고 자랑(?)하였지만 크게 마음의 동요는 없었는데, 월여 전 EBS교육방송에서 세계테마기행으로 며칠 연달아 방영한 장가계를 시청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가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무렵 친구로부터 대구출발 장가계로 직행하는 전세비행기 편에 4박5일 65만원 비용으로 동행하자고 권해왔다. 쉽게 결론을 내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홍보하여 50여명이 함께 출발하는 사천항공에 몸을 실은 것은 2014년 8월 17일 19시 45분이었다.

약 3시간 뒤 장가계 공항에 도착하여 곧장 멜 크리스탈호텔(준5성급)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내일 날씨가 좋기를 기원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호텔이라 시설이 깨끗하여 편히 쉬 수 있었지만 새벽에 주변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단잠을 깨우고 말았다. 새벽 6시가 약간 지난 시각인데 벌써 인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70년대, 우리나라도 이러했었지. 그런데 전날부터 오던 비가 오늘은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연중 200일 이상 우천이라니 감수하는 수밖에.



〈산중턱에서 쏟아지는 폭포와 황석재를 배경으로 삼아 필자도 한 컷을 남기다〉

첫 행선지가 보봉호다. 주차장에 내리니 산중턱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뿔어 내린다. 계곡도 아니고 산꼭대기도 아닌 중턱에서 저 힘찬 물줄기를 어떻게 뿔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닐 우의에 우산을 받쳐 들고 30분 정도 걸어 보봉호에 이르렀다. 인공호수지만 길이 2.5km, 수심이 72m나 되는 꽤 큰 호수다. 기와지붕을 덮은 유람선에 올라 호수를 한 바퀴 돌았다. 산봉우리는 기암괴석이요, 여기저기 작은 폭포들은 시원한 선율을 읊어낸다.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달리는 배위에서 사방을 살피기에 정신이 없는데 호수 위에 배를 고정시켜 두고, 배위에서 현지인 선남선녀가 멋진 추억여행이 되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가이드가 권유하여 우리 배에서도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먼저 부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명하였는데 내 옆에 51년이나 함께한 집사람이 2번 타자였다. '봄날은 간다'란 옛날 노래를 가사도 정확하게 불러 박수를 받았다.



〈999계단 앞에선 집사람과 어필봉의 장관〉

점심 후 찾은 곳은 황룡동굴이다. 입구는 보잘 것 없었으나 내부는 장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류굴을 비롯한 여러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맛은 없었지만 규모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 10대 용암동굴이라는데 배를 타고 5분 정도 달려 배에서 내려 계단 2200

개를 오르내리는 험난한 코스다보니 제법 힘이 든다. 쏟아지는 폭포수는 적막을 깨트리고 물줄기는 힘차다. 높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중유석이 시선을 끈다. 중국 돈 1억 원의 보험이 들어있단다. 비를 피하면서 관광지를 바꾼 가이드의 재치가 돋보인다. 오늘의 피로는 전신마사지로 풀고 나니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셋째 날, 우리일행이 탄 1호차에서는 선택 관광으로 귀곡잔도, 유리잔도를 택하고 대협곡은 몇 사람만 택했다. 그들 몇 명은 2호차로 옮겨 대협곡으로 떠나고 남은 19명은 9시 반에 승차하여 곧장 라텍스 공장으로 갔다. 오전 관광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선택 관광은 선택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되도록 여행약관에 명시해 있지만 현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황금같은 시간이 아깝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가이드와 싸울 수도 없고. 그도 이렇게 해서 먹고살아가는 조선족 3세 경주김씨 후손이었다.

오후에 천문산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긴 7.45km 길이의 케이블카를 타야한다. 전날 비가 온 탓에 관광객이 몰려 올라갈 때 70분, 내려올 때 50분이라는 기다림 끝에 가능했다. 1518m로 장가계 시내에서 뻗어 보이며 약 8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산이다. 귀곡잔도는 산중턱을 깎아지른 절벽에 간신히 사람이 비킬 정도의 길을 낸 곳으로 귀신도 놀랄만한 스틸이 넘치는 곳이다. 유리잔도는 그 일부를 유리로 덮은 곳이라 더욱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 산에서는 천문동이라 부르는 하늘로 통하는 굴이 백미다. 산 높이가 1300m 지점에 굴 높이 131m, 너비 57m, 길이 60m가 되는 장대한 규모다. 이 굴을 마치 전설처럼 비행기가 무난히 통과했다고 해서 더 유명하단다. 999계단을 올라야 하니 겹부터 집어먹는 일행이 더러 있다. 여기까지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추억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의지만 믿고 계단 하나하나를 밟았다. 집사람도 묵묵히 따라주었다. 생각보다 계단은 가파르고 폭도 좁은 편이라 난간을 잡아도 무척 힘겹게 오를 수밖에 없다. 드디어 더 오를 계단이 없다. 굴 중간쯤에 하늘로 통하는 큰 구멍이 나있다. 말하자면 이 굴은 하늘과 소통하는 공간인 것이다. 물론 100% 자연산이다. 천문산은 99구비를 구불구불 돌아가는 찾길이 나있다. 이 험한 낭떠러지 길을 중형 버스 기사들은 잘도 몬다. 아찔아찔한 고비를 거침없이 달리니 간이 콩알만 해 진다.

저녁에는 선택 관광으로 50불을 내고 ‘천문호선(天門狐仙)’ 쇼를 봤다. 대협곡을 이용하여 무대를 설치하고 300억 원의 제작비에 500명의 출연진, 3,0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거대한 노천극장인데 10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하여 나무꾼과 사랑을 이룬다는 주제를 음악극으로 꾸민 것이다. 천문산에서 내려 비치는 아름다운 조명과 마치 견우




<영화 '아바타' 촬영지 원가계에서>

직녀가 은하수를 타고 만나듯 수백미터 높은 곳에서 다리가 연결되어 만나는 장면, 합창단원의 아름다운 하모니,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 웅장한 배경음악 등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연출에 감탄사를 지르며 추억 하나를 더 쌓은 두 시간이었다. 중국의 3대 쇼로 꼽힌다고 한다.

넷째 날, 가장 장가게 다운 곳을 찾았다. 황석채와 천자산, 원가계로 이어지는 코스다. 황석채는 1300m, 천자산은 1250m이며 케이블카로 이동하니 쉽게 오르지만 정상 부근에 닿으면 수직으로 오르는 느낌이라 오금이 저린다. 원가계는 ‘아바타’라는 영화촬영지로 알려져 있어 더욱 신비감에 빠져든다. 거대한 원기둥 모양의 암봉이 밀바닥부터 분리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라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그냥 한 봉우리만이라도 똑 떼어다 팔공산 자락에 갖다 놓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하다. 곳곳에 교포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며 가게들이 있다. 특히 민물양식의 진주를 파는 가게는 건물 신축비만 우리 돈으로 40억을 들였다는데 북경, 상해, 계림에도 가게를 내고 있다는데 인천 출신의 이귀남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천자산 능선에 기념품 가게를 연 교포도 기억에 남는다. 포천의 이동막걸리를 1만원에 파는데 맛을 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좀 싱겁게 느껴진다.

마지막 날은 이군성이란 분이 운영하는 군성화원(박물관)을 찾았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돌을 갈아 돌가루로 그림을 그린 이색적인 박물관이다. 색감을 완벽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장가계 암봉들을 실감 있게 표현해 박수를 받을 만했다. 시간이 남아 몇 군데 쇼핑점을 들렀고 점심으로 중국식 식사를 했다. 어설픈 한식만 먹다가 중화요리에 입맛을 찾았다고나 할까. 저녁 식사가 늦을 것을 대비하여 넉넉히 배를 채워 두었다.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여러 차례 와서 이색적인 풍물을 많이 접했다. 하지만 무이산, 칠채산 등은 사진으로 본 여운이 오래 남아있어 언젠가는 볼 날이 있으려니 기대하고 있다.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느라 두 다리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잘 견뎌준 다리야! 고맙다. 남은 날도 너밖에 믿을 게 없구나. 잘 부탁한다.’ 

고문, 그 찬란함

고 윤 자
수필가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장사령이 곤장을 내려친다. 형틀에 묶인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서 ‘우-옥’ 신음을 토한다. 땅에는 이미 선혈이 낭자하다.

텔레비전 사극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고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얼마 전에 겪은 불편했던 일이 뇌리를 스쳐간다.

문화원에서 단체로 인문학 기행을 간 적이 있다. 어느 정도 먹을 것을 돌리고 받고 하는 과정이 끝나고 조금 조용해질 즈음이었다. 일행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 뭐 재미있는 오락 프로나 웃기는 얘기, 아니면 문화해설사의 등장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생똥맞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문화원장 자신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어서인지, 다른 사람의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였다. ‘강매적인 소비?’ 어찌 보면 전문적인 인사의 혼자만의 사치에, 싫다고 저항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들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나도 평소 클래식을 좋아해서 집 안 가득 오디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인 우리들은 몹시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은 오히려 그런 우리 기분을 누르고 처지게 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그러하였음에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클래식 듣는 일을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무식하고 음악에 대한 교양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을 것이 아닌가.

대중음악과 고전음악의 차이가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화에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류층이 자신들을 구분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전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물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라는 과정에서 음악적 성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다. 환경이 선택의 여지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층은 대부분 대중음악 쪽으로 기울어, 차별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클래식은 따분해서 싫고 난 그냥 ‘그 가수가 부르는 최신 유행가를 즐기고 싶다’, 그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음은 팝송으로 바뀌겠지’ 라는 희망으로 일행들은 숨을 죽였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흐른다. 마치 정장 옷을 격식에 맞춰 차려입고 고고장에 갈 때처럼 어색하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 목에 힘주면서 부르고, 남에게 과시하며 입장해야 할 것처럼 모두에게 부자연스럽기만 하다. 누구나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문화원장의 권위에 대항하여 진실을 토로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음악은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고, 거기에는 세상의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음악이 우리를 고문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즐거워야 할 여행을 피로하게 만들고, 앉아서 듣고 있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린다. 우리는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알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반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참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극도의 혐오감이 머리를 치켜든다.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은 단지 희망에 불과했다. 마침내 어떤 용기 있는 회원의 참다 못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뭐 남행열차 같은 그런 음악은 없습니까?”

차 안의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의 마음 역시 똑같았던 것 모양이다.

문화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거침없었다.

“음악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클래식만이 유일한 음악인 줄 아는 그 자아류의 사고가 우리를 더욱 옥죄었다. 낮고 침착한 톤으로 말씀은 계속된다.

“다음 곡은 페라리 작곡 ‘마돈나의 보석’입니다.”

문화원장의 이러한 시도는 문화의 품격을 높이려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러한 문화적

강매에 우리들은 길들여지고 무감각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말로 되돌아오는 문화의 폭력이 쓸쓸하다. 실로 이름도 생소한 형체 없는 고문이 계속된다.

하기야 이런 외적인 고문쯤이야 오히려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이 끈질기게 우리를 고문한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엔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희망퇴직을 할까, 아니면 그냥 눌러앉을까 같은 복잡한 문제까지 고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하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이 복잡함이 우리를 고문한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확대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을 고문하는 삶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다.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이른바 ‘자가 생산’ 되는 고문이다.

누구에게서 선택된다는 것은 때로는 가슴 두근거리는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기도 한다.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 연인에게서 사랑을 강요받는 것도 고문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죄인을 담당했던 일제 시대의 어느 순사는 고문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아내의 키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열려있는 문으로 뛰어나와 공정을 향해 나설 수도 있고 그저 망설이며 바라보다가 문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선택이 궁지에 몰릴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허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빨리 손을 빼지 못하고, 펄펄 끓는 물 속에 손을 넣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희망이 우리를 고문하기도 한다.

고문은 여전히 남아 그 빛도 찬란하게 우리들의 현실을 관통하고 있다. ㄹ

2006년 수필문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대구문인협회, 영남수필문학회회원,
경북문화체험수상, 공무원연금수상, 2009 약사문학상

재수 없으면 백 살까지 산다



김 원 중
시인, 포스텍 명예교수

“3등아 잘 있거라 6등이 간다”

이 말은 은퇴한 한 사업가가 아들 내외에게 괘시를 받았다고 화가 나서 가출하면서 아들 내외에게 남긴 쪽지 글이다. 평생을 사업에 몰두한 관계로 가진 재산은 제법 있으나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속이 천불이 날 일 뿐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하는 짓거리가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러다가 드디어 화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루는 거실에서 무료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저녁상을 차려주고는 아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손자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그것까지는 자주 당한 일이라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사건이 터진 것이다. 즉, 아들 내외가 갈빗집에서 식사하고 왔는지 갈비뼈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는 개에게 던져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하고는 거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갈빗집에서 식사하였으면 집에 혼자 있는 아비에게 갈비 한 대 사가지고 오면 안 되나? 싫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짐을 대강 짊 가방 하나만 들고는 복덕방과 결혼상담소를 찾아 갔다. 가진 돈이 있으니 아파트 한 채 금방 살 수 있었고, 아직도 60대 중반의 건강한 몸이라 배필도 며칠 만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평생 운전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사장 출신이라 자가용이 있어도 소용없었는데 새로 맞이한 배필이 젊은 시절부터 먹고 살기 위해 용달차를 끌고 다닌 경력

소유자였다. 그래서 외제 자동차 한 대 구매하여 새 마누라가 운전하여 전국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집 근처의 서실에 와서 자랑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은퇴자의 말이 재미있다. 자기 집에서 1등은 며느리, 2등은 손자, 3등은 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4등도, 5등도 아니고 6등이라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4등은 가정도우미 아줌마, 5등은 자기 집 개한테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돈 벌어 자식 키우고 집을 장만한 자기는 겨우 꼴찌인 6등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년퇴임으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요즘 덩다고 아침저녁으로 문안 전화해 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 행복하다고 새삼 여겨졌다. 그리고 자신도 아프다면서도 곁에서 24시간 떠나지 않는 아내가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지 아니한가. 은퇴 후 중풍으로 쓰러졌고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까지 하였지만 요즘도 원고 쓸 일이 계속 있고 강의할 때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할 뿐이다. 팔자는 길들이기에 달렸더니 내가 그 주인공인가 보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은퇴 후 대개 몇 가지 다닐 대학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은퇴 전에 하였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예일 대학이다. 예전에 하던 일 없이 바쁘게 다니는 사람은 하바드 대학생이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은 동경대학생이라고 하던가? 자기 집 방구석에만 콧 박혀 지내는 사람은 방콕 대학생이라고 한다. 물론 마지막 방콕 대학생인 은퇴자가 가장 서글픈 신세가 아닌가 한다. 나는 요즘 내가 은퇴 후 스스로 정해 둔 생활신조 세 가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즉 “걸어라, 웃어라, 읽어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만 먹으면 걷고 사람들을 만나면 웃는다. 평생을 교단에 섰으니 걷는 것은 생활화되었고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무엇이 좋아서 늘 웃느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물론 “너희를 보면 좋아서 웃는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웃음은 최고 보약이고 명약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도 깨면 책을 읽는다. 책 읽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읽으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쓰는 일이다. 내가 존경하는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99세로 숨진 날 아침에도 3천 자를 썼다고 하지 않는가. 걷고, 웃고, 읽는 것이 은퇴 후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나 자신이 되어 버렸다. 얼마 전 후배 동창들의 모임에서 축사를 하다가 부탁이 있다면서 “20년 후에 동창회에서 축사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보니 20년 후에는 내 나이가 백수白壽가 아닌가. 이리다가 재수 없으면 백 살까지 살까 걱정스럽다. 卍

1936년 경북 안동출생, 중앙대 대학원 문학박사

195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시 입선

시집 <별과 야학>(1957) <과실 속의 아기씨>(1964)

<별>(1969) 발간

1982년 경상북도 문화상(문학부문), 1999년 예총예술상(문학) 수상



까치집



서 하
시인

흘림체로 내리던 비 그치고
 햇살이 이토록 고운 걸 보니
 가깝고도 먼 거기서는 잘 지내는지
 내 숨소리와 체온을 아직도 기억하는지
 집 밖은 푸른 절벽
 손닿지 않는 외진 곳
 까치밭로 올라다보는데
 문패 한 번 달지 못한 까막눈의 늙은 집
 맨발의 달을 꿀꺽 삼킨다
 멀어져간 너의 까치걸음
 혼자 먹는 밥그릇에 소복한데
 두근두근 숨 쉬는 저 집,
 하늘의 허파

경북 영천 출생
 1999년 계간 『시안』 신인상 수상
 2010년 시집 『아주 작은 아침』 시안 출판
 2015년 시집 『저 환한 어둠』 시와표현 출판
 한국 시인협회 회원, 대구시협 이사, 대구문협 회원
 대구문학관 운영자문위원
 제33회 대구문학상 수상

2016년 2·28기념사업회 정기총회



2016년 2·28정기총회가 지난 2월 5일(금) 11시 본 회 기념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결산서와 2016년도 사업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학생들과 함께 하는
2·28민주운동 56주년 기념 사진展

제3회 2·28민주운동 기념사진전



2·28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선양하기 위한 제3회 2·28민주운동 사진전이 지난 3월 8일(화) 오후 2시 오프닝을 가졌다. 이번 사진전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2·28민주운동 56주년 기념 사진전』이라는 제목으로 2·28관련 사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2·28민주운동 관련 그림 작품까지 포함 84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노동일 공동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진 전시회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며, 민주주의의 횃불을 밝힌 2·28의 큰 의미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2·28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에 더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 6~7전시실에서 3월 8일(화) ~ 3월 13일(일) 6일간 전시되었다. 관람 기간 동안 약 18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즐겼으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2·28민주운동 56주년 기념 사진전』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





2016년 제1차 이사회 개최

2016년 1월 22일(금) 14:00 본회 기념회관 세미나실에서 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은 2015년도 결산서 심의,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심의, 정회원 가입승인 정회원 직
 책별 회비 부담액 책정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창의적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1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창의적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을 가졌다.

협력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각종 프로그램 인력 풀 공동활용, 민주시민 등 다양한 특
 강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학습교육지원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지원, 비행청소년 공동 선도 사업,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 지원 등이다. 노동일 공동의장(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과 김홍태 관
 장(2·28민주운동기념회관), 손병근 소장(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육성 및 지역주민의 지적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힘쓰고, 더 나아가 대구시민과 청소년의
 민주시민 정신 함양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협약하였다.

제16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4·19혁명을 완수케 한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대구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도록 하여 21세기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28민주운동 글짓기를 공모합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후 원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 응모마감 : 2016년 5월 27일 (금)까지
 - 주 제 :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정 부패를 몰아냈던 대구 학생들의 의로운 운동 내용이나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글
 - 자 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각 학교에 비치된 2·28민주운동사, 4·19혁명통사,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228.or.kr>), 대구두류공원 2·28기념탑비문, 대구2·28기념공원 내 시비, 사회과 탐구, 대구의 생활 4-1,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등. 기타 사항은 2·28기념사업회에 문의
 - 응모자격 :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교 전 학년생(응모료 없음)
 - 응모내용 : 운문 또는 산문 1편(A4용지 2쪽 내외, 중복 제출 무효)
 - 접수방법 : E-mail 접수(개별 접수 또는 학교별 단체 접수)
 - 접수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우 41968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053)257-0228 / FAX(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 명단제출순서 :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학교 주소, 연락 전화번호,
글 제목, 담당 교사명
 - 심 사 : 별도 전문가로 구성
 - 입상자발표 : 2·28홈페이지, 해당학교 또는 개별 통보(6월 중)
 - 시상식 : 해당학교 또는 개별 통보(6월 중)
 - 시상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지방보훈청장,
2·28공동의장(학생, 지도교사, 학교단체상)
-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SAMHAN
BRICK & PAVER

황토벽
토토돌

기능성 건축소재

고전적인 미적 가치를 지니는 황토벽돌은 친환경성, 원적외선 방사, 내구성, 내화성, 단열성, 흡음성, 탈취성 등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건축물 생애주기에 있어서의 경제성, 저렴한 유지보수비, 높은 에너지 효율성(보온성) 등을 갖춘 기능성 건축소재이다.

세계최고의 품질

계절 및 온도변화가 국내 환경과 유사한 미국 ASTM규격보다 훨씬 상회하는 고강도 제품으로 평균 압축강도가 건축용 벽돌 350kgf/cm², 바닥용 벽돌 700kgf/cm² 이상을 가지는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고강도 점토벽돌은 장기내구성 및 내마모성, 동결융해 저항성이 뛰어나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벽한 사이즈 균일화와 오차제어, 두들림과 휨·크랙 방지, 규칙적이고 깨끗한 표면처리, 고급스럽고 다양한 컬러 발색을 실현시켰다.

(주)삼한씨원 www.ebrick.co.kr / 1599-9989



주식회사 삼한 C1
SAMHAN CERAMICS ONE

변함없는 마음, 변화하는 DGB대구은행



언제나 고객과 함께 성장한 DGB가 또 한번 무한한 가능성을 그려냅니다.
새로운 발전을 통해 더욱 밝은 내일의 희망을 이끌어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융 더 나은 미래 DGB 대구은행

DGB대구은행 